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5·18 민주 영령들 뜻 기억합니다"

등록 2026.05.18 09:09:13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는 18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정신을 기억합니다'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19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역사였다"면서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남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간직한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광주와 경남은 서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온 역사적 동반자였고, 오늘 그 정신이 더욱 결실하고 또렷하게 다가온다"고 적었다.

또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상식 위에 바로 선 정치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

는다"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5·18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박완수는 5·18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도민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정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